무주군, 청년 위한 지원 나서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청년가게 임차료 지원 대상자 선정

무주군이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 지원 사업', '청년가게 임차료 지원 사업' 참여자를 선정하고 본격 지원을 한다고 9일 밝혔다.

'무주청년 키움 두 배 통장 지원 사업'은 2021년에 이어 올해도 주목을 받았다.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한 결과 모집 인원 50명에 91명의 청년이 신청을 했다.

이 사업은 36개월 동안 매월 10만 원을 적립하면 군 재원으로 동일한 금액의 자립지원금(10만 원)을 매칭 적립해 주는 것으로, 만기 시 본인 저축액의 두 배에 해당하는 원금과 이자를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선정된 청년은 지정된 은행(NH농협은행 무주군청출장소)에 통장을 개설하면 자부담 적립이 가능하다. 군은 2021년에 48명, 올해 50명이 선정돼서 총 98명이 3년간 3억5,280만 원을 지원받는다고 밝혔다.

통장 지원 사업 참여자인 생선요리 전문점 '어랑'의 조철희 대표는 "지원 사업에 선정돼 정말 기쁘고 감사하다. 나뿐만이 아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난으로 미래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지역 청년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렸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정착하지 못한 취업준비생이나 아르바이트생들에게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머무르면서 정착을 준비할 수 있도록 폭넓은 청년 지원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 가게 임차료 지원 사업' 또한 마찬가지로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8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10명의 청년 창업가들이 선정돼 지원을 받게 됐다.

이 사업은 창업한지 얼마 되지 않은 청년창업가들을 대상으로 하여 월 임대료의 50%를 최대 20만 원 한도로 10개월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영난을 겪고 있을 청년창업가들의 경영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다.

지원 사업에 선정된 컴퓨터 전문 업체 '반디 O.A'의 김양수 대표는 "지원 사업에 선정돼 너무 기쁘다"며 "지원 금액과 지원 대상 범위 확대 등 창업 관련 사업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 경영인들이 혜택을 받아 창업 여건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무주군청 산업경제과 박각춘 과장은 "군의 청년들에 대한 이번 지원으로 창업 초기 경영난과 코로나19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청년창업가들과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경영부담을 덜어주게 됐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한우 수급 안정화 총력

한우 가격 하락 대비 경영비 지원·판매촉진 활성화 등 선제적 대응

장수군이 코로나19 이후 한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축량이 증가해 한우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세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수급관리에 나선다.

지난 8일 군에 따르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ERI)이 내년까지 한우 공급 과잉상태 유지와 도매가격 하락세를 전망했다며, 적극적인 수급조절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장수군은 경영비 지원, 한우 품질 향상 지원, 판매촉진 활성화 등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한우 수급 안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먼저 장수군은 한우 농가 경영비 지원을 위해 ▲축산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 ▲축사신축 지원 ▲조사료 유통가공센터 지원 ▲풀사료 생산·수확 지원 ▲곤포사일리지(볏짚) 비닐공급 ▲가축분뇨 수분조절제 지원 등 19개 사업에 총 101억 4,100만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또한 한우 품질 향상 지원을 위해 총 19억 2,000만 원을 투입해 ▲장수한우 수정란 이식 지원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 ▲무항생제 한우인증 지원 ▲축산물 품질향상 지원 등 12개 사업을 진행한다.

이외에도 한우 판매촉진 활성화를 위해 ▲판매촉진사업 운영비 지원 ▲농어촌 및 식품 산업 박람회 참가 등 장수 한우농가 수익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종진 축산과장은 "한우 공급 과잉도 문제지만 최근 국제 곡물가격 불안으로 인한 사료 값 상승 등의 문제도 심각해지고 있다"며 "군에서는 한우농가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관련 사업들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덕유산국립공원 봄꽃 복수초·너도바람꽃 활짝

국립공원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이승찬)는 대표적인 봄꽃인 복수초와 너도바람꽃 개화 모습을 공개하여 봄이 왔음을 알렸다.

봄꽃의 개화 시기를 결정하는 2월 적상산(1,034m)의 평균기온은 영하 5도로 지난해보다 4.9도 낮았고, 강수량은 11.5mm로 지난해보다 약 18mm 적어 일주일가량 늦은 것으로 분석했다.

복수초는 이른 봄 제일 먼저 노란 꽃을 피워 '봄의 전령'이라 부르며, 너도바람꽃은 꽃잎 끝에 봄의 색깔인 노란 꿀샘이 있어 황록색 꽃잎을 가진 변산바람꽃과 구분된다.

안도홍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복수초, 너도바람꽃을 시작으로 3월 중순경부터는 현호색, 얼레지, 동자꽃, 원추리 등 계절별 야생화를 만나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워크온 앱 활용 비대면 걷기사업 추진

진안군은 상반기 비대면 모바일 걷기 앱 '워크온'을 활용한 '1530 건강걷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군은 코로나19의 감염 확산으로 감소한 주민들의 신체활동을 증진시키고, 지역사회 걷기 환경 조성을 위해 3월~5월까지 건강걷기를 실시한다.

이번 건강걷기 프로젝트에 사용하는 '워크온'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비대면으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모바일 걷기 활동 앱이다. 나의 걷기활동을 분석해 볼 수 있고, 커뮤니티 가입을 통해 순위도 비교해볼 수 있으며 챌린지에 도전해 상품(홍보물품)도 받아볼 수 있다.

특히 3월 6일~4월 2일 기간 동안 앱에 가입한 참가자에게는 기념품을 증정하는 가입이벤트도 진행 중이다.

또한 매달 걷기 챌린지를 운영하며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기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군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참여 방법은 스마트폰에 워크온 앱을 설치하고 '진안군'을 검색 후 가입하면 된다.

/진안=우태만 기자

봄이 주는 자연의 선물 '진안고원 고로쇠'

군, 제18회 온라인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 판매행사 진행

진안군은 온라인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를 맞이해 판매행사를 갖는다. 올해로 18회째 맞이한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는 11일 온라인 축제와 10일~12일까지 온라인 판매행사로 진행된다.

축제를 맞이해 먼저 진안군 직영쇼핑몰인 '진안고원몰'에서는 8~12일까지 5일간 청정진안고원의 고로쇠 수액 할인 행사를 갖는다.

8~9일은 고로쇠 수액 20% 할인행사로 10~12일까지는 20%할인과 함께 2+1이벤트로 소비자들을 찾아간다.

진안고원 고로쇠 정제기.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는 일교차가 크고, 때 묻지 않은 청정환경을 간직하고 있어 좋은 품질의 고로쇠가 생산된다. 운장산 자락 해발 600m 이상의 고로쇠 군락지에서 채취해 품질이 우수하다. 채취한 후 품질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보통 2월 중순부터 약 20일간 수액 채취가 가능한 가운데, 채취 후 당일 정제기로 정제하여 보다 깨끗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고로쇠를 생산한다.

또한 생산자, 생산시기, 생산지 등 고로쇠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고, 유통기한을 표기해 소비자가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봄이 주는 자연의 선물인 진안고원 고로쇠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며 "더불어 온라인 진안고원 운장산 고로쇠 축제에도 많은 관심 보여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별빛이 아름다운 무주군 나림마을 변신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에 위치한 나림마을이 '별빛이 아름다운 마을'로 변신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시재생으로 마을환경이 대폭 개선되면서 부터다.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따르면 나림마을은 23가구가 소재한 소규모 마을로 주민들이 나서 2020년 무주형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선정돼 조명벽화를 설치하는 등 마을 야간 경관을 아름답게 바꿔 주목을 받고 있다.

또 2021년에도 무주형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에 응모,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의 확대 가능성을 인정받아 2년 연속 선정의 영예를 안았다.

설천면 삼도봉 장터로부터 나림마을에 이르는 길을 걷고 싶은 거리로 만들기 위해 꽃길과 자전거길, 마을 화단을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비했다.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마을, 작지만 보석 같은 나림마을'을 목표로 조명벽화의 조명을 보수한 후 포토 존을 만들었다. 이외에도 마을 주민들의 쉼터인 느티나무 아래 조명 등을 교체하고 벤치와 테이블을 설치해 공연이나 전시회 등의 행사와 휴식 공간을 확보했다.

사업을 주도한 안신영 주민대표는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웃들과 더욱 끈끈한 관계와 공동체가 형성됐다"며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으로 마을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외부에서도 사람들이 찾아오는 마을이 됐다"고 말했다.

무주군 도시재생지원센터 김혜천 센터장은 "나림마을이 주민공모사업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고 주민 주도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무주형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의 긍정적인 목표를 이뤄냈다"고 평가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본격 추진

진안군은 금강수계 기금 11억4300여 만원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나선다.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으로 인해 각종 행위 규제를 받는 관내 8개 읍·면 64개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소득 증대, 복지증진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주민지원사업비 중 간접지원사업으로는 ▲친환경 유기질비료(퇴비)구입, ▲공동농기계구입 등 소득증대사업에 3억1,300여 만원 지원, ▲가구별 상수도 급수시설, ▲가구별 음식물처리기 구입, ▲마을회관 보수, ▲마을회관 운영비 지원 등 복지증진 사업에 2억 3,200여 만원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직접지원사업비 비율 상향으로 가계생활지원비 지원금액이 증액되어 총 550여 명에게 재산규모에 따라 전체 5억7000여 만원을 차등 배분하여 3~4월 중 지급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개정된 '금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지침'에 따라 소모성 영농자재(퇴비 등) 사업이 사업비의 50% 이내로 제한됨으로써 단위사업과 신규 복지증진사업이 다양화돼 주민들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방규 환경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마을에 주민지원사업추진으로 활력을 불어넣고, 앞으로도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Here is a to Good a Pension

무주별빛카라반&펜션의 모토는 "머무는 모든이들을 즐겁게"입니다.
모토에 맞게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에게 즐거운 기억을 남겨드리는게
제1원칙입니다. 보기만해도 시원한 구천동계곡에서 사랑하는 가족,
연인 친구들과 지친 일상을 떠나 자연과함께해보세요.

무주 별빛 카라반&팬션

주소: 전북 무주군 설천면 백련사길 2-29(삼공리 518)

전화번호: 010-9433-0696(대표 박태욱), 010-9408-3582(오용선), 063-322-6668